

2007 도약하는 향토우수기업

③ 담양 고려전통식품



‘기순도 메주’ 내놓기만 하면 불티

기순도(여·58·사진) 고려전통식품(담양군 창평면 유천리) 대표는 신년벽두부터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설날부터 한달동안 서울 신세계백화점에서 열리는 ‘전국 메주 바자회’에 출품할 유기농 메주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죽염 된장·고추장 90여종 개발... 장류산업 선도 ‘고향의 맛’으로 年 매출 10억...미·일 수출 노크

바자회 출품과 함께 기 대표는 올해 처음으로 계획한 ‘가족 장 담가주기’ 행사를 준비해야 한다. 이 행사는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간장·된장·고추장 등을 담가, 이음표를 향아리에 붙여 이듬해에 먹도록 하는 도·농 친화프로그램이다.



담양군 창평면 고려전통식품 직원들이 오는 2월 서울 신세계백화점에서 열리는 ‘전국 메주 바자회’에 출품할 유기농 메주를 만드느라 바쁜 손길을 놀리고 있다.

죽염 시리즈에서 김부각(초피나무 열매 껍질인 껌피를 붙여만든 김), 표고버섯 된장, 더덕 고추장, 속과 방이를 넣은 된장국 등에 이르기까지 90여종이 넘는다. 특히 기 대표는 2001년 죽염을 이용해 청국장 특유의 냄새를 없앤데다 분말로 만들어 유통기한을 늘린 분말 청국장을 출시, 담양군 신지식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고품질·고객 일등주의 실현”

전 덕수 신임 한전전남사업본부장



“전남사업본부의 저력을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일 취임식을 가진 전덕수(56) 한전전남사업본부장은 “지난해 독립사업본부 운영의 기틀을 마련했다면 올해는 본격 뿌리를 내리는 시기”라면서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고품질 전기를 서비스 하겠다”고 밝혔다.

다”면서 “고객을 직접 찾아가 불편을 없애는 물론 이웃의 아픔도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성 출신으로 광주상고와 조선대를 졸업한 전 본부장은 지난 1977년 한전에 입사한 이후 광양지점장, 기획관리처 예산총괄부장, 기획처장 등을 역임했다.

“집값 버블...가계궤 금융위기 잠재”

삼성경제연 또 제기...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 악순환

경기가 급랭할 경우 집 값이 일시적으로 하락해 가계발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또다시 제기됐다. 삼성금융연구소 이정원 수석연구원은 8일 월간 금융리포트에서 “국내 주택 가격은 수도권 중심으로 버블 징후가 존재하며 중장기적으로 가계 소득의 급감과 금리 급등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할 때 급락할 위험이 내재해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작년 9월말 현재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가계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PIR)은 13배로 미국 LA 11.2배, 호주 시드니 8.5배, 뉴욕 7.9배, 영국 런던 6.9배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과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작년말 현재 내재 가치에 비해 각각 15%, 51% 고평가돼 거품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이 주택 가격 버블 징후가 큰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고 변동금리 대출도 작년 7월말 잔액 기준 97%에 달해 주택 가격 하락이나 금리 상승에 따른 충격 강도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의 추가 담보 요구,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기피, 대출금리의 추가 인상 등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면 가계발 금융 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을 목표

생산-38만5천대·매출-5조8천억

기아차는 올해 전년 대비 22.1% 증가된 154만대를 생산해 22조원의 매출액을 달성키로 경영목표를 정했으며, 광주공장은 이 가운데 전년 대비 23.2% 늘어난 38만5천대를 생산해 5조8천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키로 했다.

특히 광주공장은 연간 생산능력 15만대를 갖춘 스포티지와 카렌스 전용 라인에 힘입어 광주공장 설립이래 최대 생산실적인 이 목표를 넘어설 계획이다.

광주공장은 최근 ‘자랑스런 우리일터 한마음 한뜻 모아 위기를 희망으로’라는 슬로건과 함께 ▲생산목표 38만5천대 달성 ▲생산합격률 92% 실현 ▲특자구현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등 경영방침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해 기아차는 완성차 생산 126만1천대, 매출액 19조원을 기록했으며, 이중 광주공장은 31만2천622대를 생산해 4조9천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여성은 우리 농업의 희망”

박홍수 농림부장관 여성농업인 초청 격려



“여성이 능력을 맘껏 발휘해야 농업이 산다” 최근 박홍수(사진) 농림부장관이 이란 지분을 앞세워 여성 농업인 사기 북돋우기에 발 벗고 나섰다. 8일 농림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10일 대표적 여성 농업인 10여명을 과천 청사 장관실에서 초대, 직접 만나 격려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농림부가 여성 농업인 15명의 성공 이야기와 경영 비법 등을 담아 펴낸 책 ‘여성농사꾼의 유쾌한 성공 이야기’의 주인공들.

박 장관은 “여성농사꾼의 유쾌한 성공 이야기”의 추천사를 통해 “우리사회, 특히 농촌의 경우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제약이 있다”며 “이 책에 등장하는 여성농업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농업의 새로운 가치와 수익을 창출했기에 그 이야기가 더욱 값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농림부는 이 뿐 아니라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10명의 정착기를 모아 ‘특별한 며느리의 행복 찾은 농촌살이’라는 제목의 책도 발간했다.

삼성전자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의 2조1,234억원

오는 12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전망치가 평균 2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지적이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삼성전자 주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여파로 나흘 연속 약세를 지속해 전일보다 2.18% 하락한 58만2천원으로 마감했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실적 전망치를 종합해본 결과,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평균 각각 16조954억원, 2조1천234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한국수석합격자 배출 13,14회. 전국 최대 합격자 배출학원. 1월 2일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361-8111

한길 컴퓨터 정비전산학원. 배움초기강! 522-9119

Innovation of chair! 싱크바크에는 허리가 있습니다. 운동기능. 522-2255-3100